

농산어촌의 지역가치 제고를 위한 공간디자인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Spatial Design for Enhancing Regional Value in R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주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nagoyajang@hongik.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5.2.285>

접수일 2025. 05. 20. / 심사완료일 2025. 05. 24. / 게재확정일 2025. 06. 09. / 게재일 2025. 6. 30.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idle space revitalization in rural, mountain, and fishing villages as well as in urban areas to explore progressive directions for regional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spatial design in rural contexts. The analysis confirms that idle spaces can serve as creative hubs that reflect the cultural assets and identity of local communities. Design strategies that incorporate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local cultural context contribute to spatial transformation and the restoration of regional identity. Rural cases demonstrate the potential of inclusive public hubs that integrate education, welfare, and income generation. Resident engagement, cultural and artistic integration, multifunctionality, and the pursuit of sustainability are identified as key elements of regional revitalization, and the study emphasizes that spatial design strategies that holistically integrate these elements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recovery and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Keyword

Rural Areas(농산어촌), Spatial Design(공간디자인), Value Enhancement(가치 제고), Case Study(사례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농산어촌 공간에 대한 포용적 공간디자인 관점에서의 지역 디자인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농산어촌과 도시의 유휴공간 개선 사례를 분석하였고, 유휴공간이 지역 공동체의 문화자산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창조적 거점임을 확인하였다. 주민 참여와 지역 문화 맥락을 반영한 디자인 전략이 공간 전환과 지역 정체성 회복에 기여하며, 농산어촌 사례는 교육·복지·소득 창출이 결합된 포용적 공공 거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민 참여, 문화예술 융합, 기능 복합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지역활성화의 핵심이며, 이를 통합한 공간디자인 전략이 지역사회 회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이론적 고찰

- 2-1. 공간디자인 관련 용어
- 2-2. 농산어촌형 공간디자인 관련 동향 및 가치

3. 농산어촌형 공간디자인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3-1. 국내 농촌 유휴공간 개선 사례
- 3-2. 국내 어촌 유휴공간 개선 사례
- 3-3. 국외의 주민참여 및 지자체 지원에 의한 지역활성화 사례
- 3-4. 국외의 로컬디자인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
- 3-5. 시사점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및 자연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농산어촌의 고립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¹⁾은 0.78명(202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인구 유지선인 2.1명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 국토의 12%에 속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2%가 거주하는 실정에서 비수도권지역인 농산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저출산 문제는 지역 인구의 감소 문제와 직결되어 지역의 고립화 및 소멸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출산 감소로 인해 고령화 심화, 활력 저하, 경기 침체, 세수 감소, 복지혜택 축소, 인구 유출, 지역 소멸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지역전출로 인한 생활 인프라의 감소 또한 농산어촌의 고립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24세 청년인구가 교육 및 취업을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생활인프라의 통폐합 문제까지 제기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위험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약 1,099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RDP의 52.7% 차지²⁾하고 있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고출산 양상을 보이는 농산어촌의 사회전출을 줄여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출산장려금 지원³⁾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한편, 인프라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실효성 부족도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

- 1)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하는 통계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5세 기준으로 구분한 연령별로 출산율을 계산한 후 이를 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라고 부른다. 동 지표는 한 국가의 출산력 비교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향후 인구는 물론 노동력의 변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2)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6),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021년 명목소득 기준, 2024.6.5. 검색
- 3) 출산지원금 1~5순위가 전남 고흥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충남 금산군, 전남 광양시 등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2023년 기준)

다. 이는 인프라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제사업의 틀을 못 벗어나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토건사업과 행정주도형 하향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판박이식 하드웨어 사업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공간 특성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포용적 공간디자인 전략 수립 및 적용방안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국가어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같은 예규가 운영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공간디자인 개념의 제도화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이드라인은 개별 단위 공간을 중심으로 제시된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비도시지역의 복합적이고 급변하는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에 제약이 존재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지자체 단위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다양한 농산어촌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들은 공간의 맥락성과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형식화된 정책 수단으로 전략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비도시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품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와의 괴리를 야기하고 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산어촌을 포함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간디자인의 방향성을 포용적 관점에서 재고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소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서 공간디자인 적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지역과는 상이한 비도시지역 고유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디자인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의 공간디자인 전개방향을 선제적이며 실천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농산어촌 공간에 대한 포용적 공간디자인 관점에서의 사례를 고찰하여 지역가치 제고를 위한개선 방향성 도출에 있으며, 향후 농산어촌 지역 디자인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2. 이론적 고찰

2-1. 공간디자인 관련 용어

공간디자인은 ‘건축물, 가로, 공원, 시설물 등 개별 대상물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이러한 대상물들이 어우러지는 총체적인 장소를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간을 형성시키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간디자인은 공간의 물리적 구성 요소 간의 통합적 관계와 장소성 형성에 주안점을 둔 계획 및 설계 행위로서 이해할 수 있다.

공간디자인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에는 공간환경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공간을 계획하거나 디자인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적용 대상이나 영역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공간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계성을 가진다. 한편, 공간디자인은 대상 중심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수법 또는 접근 방식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용어도 병용되므로 포괄적으로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공간계획의 디자인가이드라인 방향 제시를 위해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이 포함되는 공공공간 전체를 포괄하여 공간디자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농산어촌 공간디자인 관련 동향 및 가치

2-2-1. 농산어촌 공간디자인의 개념적 정의

공간디자인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체적인 장소로서의 질 높은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및 계획으로, 이는 단순히 공간환경이라는 대상을 디자인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좋은 공간환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론적 접근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산어촌의 공간디자인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공간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표 1] 공간디자인 관련 용어 정의

용어	개념	근거
공간환경 디자인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을 디자인하는 것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⁴⁾
환경디자인	주변 환경이나 입지조건을 배려하여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대상범위를 구성하는 건축공간, 시설 등을 디자인하는 것	
공공디자인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디자인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	건축기본법
공공공간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	건축기본법
유니버설 디자인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을 접근·이용이 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및 관련 문헌 참조 연구자 재구성. 2024.9.16.

가능해야 한다. 즉, 농산어촌 공간디자인은 건축물뿐 아니라 가로, 공공시설, 주변 자연환경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공간계획으로서 농어촌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가치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농산어촌 공간디자인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포용적 설계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나아가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서의 함의를 갖는다.

4) 고은정 외2,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AURI, 2008.

2-2-2. 농산어촌 공간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국내 농산어촌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저출생, 고령화,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 등 인구구조 및 규모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주로 집중되어 왔다. 특히, 지역소멸과 직결되는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고자, 농산어촌의 활력 제고 및 인구 유지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계획적 대응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농촌주택 및 빈집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빈집의 실태와 발생 요인, 나아가 빈집을 활용한 공간 재생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의 물리적 공간 구조 재편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서비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농산어촌 노인의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방안에 관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는 농산어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인구 규모, 생활서비스 및 접근성, 노인주거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주요 연구자와 연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연구들은 농산어촌의 인구 변화, 생활환경, 주거복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산어촌의 당면 과제를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공간디자인의 관점에서 농산어촌의 통합적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개별 정책, 인구분석, 혹은 생활서비스 개선에 국한되어 있으며, 물리적·사회적 공간을 포괄하는 설계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산어촌의 공간디자인 개념을 중심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2 참조)

2-2-3. 농산어촌 공간디자인의 가치

농산어촌 공간디자인의 가치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의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보존하고 이를 창출하는 공간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산어촌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는 공간디자인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가 지역 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청년층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범죄 감소 및 예방,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표 2] 농산어촌 공간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주요 내용	비고
인구 규모	허문구 외 (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K-지방소멸지수 개발 - 인구증가 및 감소지역을 그룹화하여 특성과 공간적 패턴을 분석, 시사점 도출 -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3대 정책분야 10대 추진과제 제시	경제·인문 사회연구원
	성주인 외 (2022)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의의	- 인구감소, 저출생, 고령화, 국토 불균형의 위기 속에서 농산어촌이 지닌 잠재력 전망 - 관계인구를 이용해 농산어촌 활성화 기회 전망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생활서비스/ 접근성	변필성 외 (2014)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 인구과소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서 공공시설의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	국토연구원
	송미령 외 (2022)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결과	- 농산어촌 변화의 지속적인 고찰을 위해 패널자료 구축하여 모니터링의 필요성 강조 - 대표성 있는 전국 103개 농촌지역(읍면 지역) 거주 마을 이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현황,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 물리적 환경, 가구 특성, 정주환경 등을 설문조사 및 분석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노인주거	임연옥 (2016)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늙어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 노인들이 살아온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년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 - 노화, 환경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물리적·사회환경 요인을 포함한 Aging in Place 모형을 제안	한국노인 복지학회
	이상원 외 (2016)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	- 지역 친화적 노인주거를 위한 정책적 기초 마련에 기여하고자 노인주거지원 방안들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 방향성을 제안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자료 :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www.riss.kr>) 참조 연구자 작성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는 농산어촌 지역이 보유한 자연 자산과 역사문화자산을 공간디자인을 통해 보존·계승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농산어촌을 단순한 정주 인구 중심의 공간에서 나아가 관계 인구 및 잠재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문화적 거점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는 난개발로 훼손된 농산어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공 및 민간의 체계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농산어촌다움의 회복과 지속 가능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가치는 공간디자인을 통해 공공성과 시민 의식을 고양하고, 농산어촌의 물리적 공간을 역사 및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간디자인의 전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참조)



출처: 건축공간연구소,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AURI-정책, 2018

[그림 1] 공간환경디자인의 가치

3. 농산어촌형 공간디자인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3-1. 국내 농촌 유휴공간 개선 사례

충청북도 동청주에 위치한 농촌교육문화센터는 기존에 농협 하나로마트의 이전으로 방치되었던 유휴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본 사례는 문화와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촌 마을의 현실을 반영하여, 유휴공간을 주민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기반 마련을 위하여 '미원산골마을빵'과 마을카페와 같은 소득 창출형 사업

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주민 자립 기반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지역의 유휴 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공간디자인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문화센터 마을카페와 독서동아리

전라북도 부안군의 우덕기록문화관은 1995년 신축된 마을회관이 2005년까지는 마을도서관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약 15년간 유휴 창고로 방치되었던 공간을 재활용한 사례로서, 농산어촌 지역 유휴시설의 문화적 자원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당 공간은 2021년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체사업' 및 '사·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되어 마을의 공동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기록문화관으로 재탄생하였다. 현재 우덕기록문화관은 마을 내에 산재되어 있던 역사적 의미와 보전 가치가 있는 공동체 및 개인의 기록 자료를 수집·보관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주민 주도의 문화 아카이빙 활동을 장려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공동체의 기억과 가치를 보존하는 문화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산어촌 공간디자인의 문화적 가치 구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그림 3, 4 참조)



[그림 3] 우덕기록문화관 이전모습



[그림 4] 우덕기록문화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의 이서커뮤니티센터는 2008년 인구감소로 폐교된 이서분교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간재생 사례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 화합 및 미래세대 유입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으로 전환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당 공간은 장기간 방치되며 마을 경관을 저해하던 폐교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교류, 문화 활동,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특히, 2025년에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이서커뮤니티센터를 주민 쉼터로 리모델링하고 복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기반 조성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본 사례는 폐교 등 농산어촌의 유휴공간을 재생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복지 기능을 확장한 공간디자인 전략으로서, 포용적 공간디자인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의가 있다. (그림 5 참조)



[그림 5] 이서커뮤니티센터

3-2. 국내 어촌 유휴공간 개선 사례

어촌 유휴공간 개선 사례는 기본적으로 어촌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과 융합하여 재생·활성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어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간의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공간의 가치를 제고하였고 특히, 골목길과 마을 벽면에 색채를 입히는 작업을 주민과 지역 예술가가 협업하여 일상 속 전시문화 공간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냈다.

부산 감천항 일대 '감천문화마을'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배후의 낙후지역에서 급격히 진행된 마을 공동

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 다섯 명의 예술가들이 지역에 정착한 후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피추'와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성화시켰다. 이 결과, 감천문화마을은 연간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어촌 유휴공간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사례는 어촌지역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융합을 통한 지역정체성 회복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며, 주민 참여와 협업을 통한 공간디자인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어촌문화마을 조성사례-감천 문화마을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동피랑마을은 과거 낙후된 주거지역으로서, 행정적으로는 철거 대상지로 분류되었던 지역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푸른통영21'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공동체 보존을 목표로, 물리적 철거보다는 기존 주민의 삶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향의 도시재생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협소한 골목길과 노후 주택을 활용하여 벽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커뮤니티 디자인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도시경관의 개선은 물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동피랑마을은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관광자원으로 재창조되었으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물리적 정비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도시개발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어촌문화마을 조성사례-통영 동피랑 마을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배후에 위치한 눈골담길은 과거 쇠퇴한 항구도시의 이미지와 더불어 물리적·사회적

낙후가 진행되고 있었던 지역이다. 이에 동해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가와 주민 총 165명이 참여한 지역 활력화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벽화 조성 및 지붕 채색과 같은 예술적 개입을 통해 마을 경관의 변화와 주민 주도의 문화적 재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외부 방문객의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관광자원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논골담길은 지역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연간 약 3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사례는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로서, 문화예술을 통한 장소성 회복과 관광 유발 효과를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⁵⁾된다.(그림 8 참조)



[그림 8] 어촌문화마을 조성사례-목호 논점담길

3-3. 국외의 주민참여 및 지자체 지원에 의한 지역활성화 사례

독일 오펜하우젠(Ottenhausen) 생태마을 시범사업은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대표적 사례로, 마을공동회관 설치와 더불어 공동상점, 생태관광 기반시설(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본 사업은 전통적인 방사형 가로구조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의 역사적 형태를 보존하면서도, 마을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운동시설과 수영장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 배치는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일상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총 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약 5년간 480만 마르크(당시 약 35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총회 개최, 주제별 토론회, 정보 제공 설명회,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마을회의를 통해 민주

5) 박용우, 어촌 그랜드디자인 개념 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정책연구실, 2014. p.141.

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하향식 개발이 아닌, 주민주도형 생태마을 조성의 모범적 사례로서 의의가 크며, 마을공동체가 과거에 마을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는 점도 지역활성화의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오펜하우젠 사업 사례

일본 군마현에 위치한 가와바촌은 1980년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제2의 고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지역활성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구민을 위한 휴양 숙박시설 조성 및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의 시행을 계기로 도농 간 상호 협력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후 매년 약 4억 엔 규모의 예산 지원과 공동체 중심의 교류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 내 주민참여가 정착되었고 외부 방문객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인구 약 3,100명의 소규모 농촌지역인 가와바촌에는 연간 약 2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과 관광이 융합된 전원 이상향의 자연마을 모델로서 일본 내 균형발전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소비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6차 산업의 전개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했던 농촌마을이 자립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가와바촌 내 약 900세대의 농가 중 약 700세대가 파머스 마켓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억 5천만 엔 규모의 지역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활성화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실질적인 정책 목표는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환경친화적 농촌정비', '생태마을 조성'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가와바촌 사례는 지역활성화의 공통된 정비목표를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득 보장, 물리적 기반시설과 주택을 포함한 생활환경의 친환경적 정비, 생태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과 회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의 핵심 방향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가와바촌 마을기업 전사례

3-4. 국외의 로컬디자인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인 카우나스(Kaunas)는 2018년 기준 인구 약 28만 8천 명 규모의 중도시로, 예술과 문화가 도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럽 아르데코 양식이 잘 보존된 도시로 평가되며, 지역의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한 도시브랜딩 전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서 도시정체성과 연결된 입체적 전략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카우나스 공간디자인 사례

덴마크의 콜딩(Kolding)은 2014년 기준 인구 약 9만 명의 도시로, 인구 규모에 비해 디자인 중심 도시로 특화된 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자인 스쿨 콜딩(Design School Kolding)이 위치하고 있어 그래픽, 섬유, 패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 차원에서 디자인에 대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신규 건축 및 공공공간 설계에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다. 이로써 도시경관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창의산업 육성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콜딩 공간디자인 사례

포르투갈 북동부 구릉지에 위치한 소도시 코빌랑(Covilhã)은 2011년 기준 인구 약 5만 명으로, 과거에는 동계스포츠와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쇠퇴 이후,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광 및 스포츠 도시로의 전환이 시도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오래된 벽돌주택의 골목길과 예술적 가치가 높은 벽화를 중심으로 공간디자인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창업 기반과 산업기지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재도약이 가능해졌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코빌랑 공간디자인 사례

이와 같이 카우나스, 콜딩, 코빌랑 등의 사례는 로컬디자인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이 각 도시의 고유한 특색과 문화유산, 역사적 서사를 반영한 공간적 콘셉트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물리적 확장 중심의 전통적 도시성장 패러다임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도시가 추구하는 정체성에 부합하는 명확한 디자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개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5. 시사점

이상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희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자산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희공간을 소멸 위기의 공간이 아닌 가능성의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접근과 기획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의 핵심은 주민 참여에 기반한 공동체 주도형 개발에 있으며, 이는 계획의 수립부터 운영, 자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된다. 특히,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민총회 등의 자생적 거버넌스 구조는 지역 순환 경제체계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기능한다. 셋째,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공간디자인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시각화함과 동시에 관광, 체험, 브랜딩 등 경제적 부가치로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간재생의 유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넷째, 단일 목적의 공간이 아닌 교육, 문화, 소득 창출 기능이 통합된 복합 커뮤니티 모델은 지역 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공간디자인은 공동체의 복지와 포용성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이용 주체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보장하는 설계적 고려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여섯째, 유희공간의 활성화는 물리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때 지속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 규모의 대소보다는 해당 지역이 추구하는 명확한 디자인 방향성과 철학, 전략적 개입, 그리고 행정의 지속적 지원이 지역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사점은 향후 유희공간을 활용한 지역 재생과 공간디자인 전략 수립에 있어 실천 가능한 정책 모델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에서 추진된 유희공간 개선 및 공간디자인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유희공간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과 공간디자인의 실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희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의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반영한 창조적 재구성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동피랑마을, 논골담길, 감천문화마을 등 국내 도시사례와 가오비촌, 오텐하우젠 등 해외 농촌마을 사례는 방치된 공간을 문화예술, 관광, 지역경제와 융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모두 주민 참여 중심의 접근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디자인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공간의 기능적 전환을 넘어 지역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또한, 동청주 농촌교육문화센터, 우덕기록문화관, 이

서커뮤니티센터와 같은 농산어촌 사례는 교육·복지·소득 창출이 결합된 복합적 커뮤니티 모델로서 유희공간이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공공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간디자인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재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문화적 결핍을 해결하는 사회적 디자인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희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째, 주민 주도의 참여 기반 형성, 둘째, 문화·예술적 자산과의 융합을 통한 정체성 강화, 셋째,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능 복합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이다. 향후 공간디자인을 활용한 지역계획 수립에 있어 이들 요소가 유기적으로 반영될 때, 유희공간은 지역사회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사례집, 2022.
2. 고은정, 이상민, 임유경,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AURI, 2008.
3. 박용우, 어촌 그랜드디자인 개념 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정책연구실, 2014.
4. 손은지, 장영호, 김주연, 농산어촌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3, 18(3).
5.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김정혁 대표, 김혜진 공동체장', <http://topclass.chosun.com>